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내가 쌓아가는 복 성경: 시편 127편

Tag:

1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도다 (시127:1-5)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오늘날 가정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은 삶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생의 가장 크고 중요한 행복은 오직 가정을 통해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비록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특히 오늘날 1인 가구라는 말이 유행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30%나 된다고 한다. 혼밥, 혼술, 일인가구를 옆두에 둔 제품 출시 등 1인 가구가 요즘의 트렌드가 되었다. 과거에는 남성이 가정 내 갑질 주도권을 쥐고 흔들었지만, 요즘은 여성에게 갑질 주도권을 내 주었다.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요즘 20-30대 남성 청년들이 여성 갑질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5-60대 남성으로서는 아이러니) 50대 남성의 편견으로는 여성에 대해 공부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다정하게 대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듯하다. 우선 여성들 가운데 전통적 여성상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식을 갖는 여성들이 적어졌다. (예를 들면 현모양처 스타일, 상냥한 말투, 친절함 태도, 희생적 배려 등은 이제 의무사항이나 기본 스펙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었다. 기본 스펙은 오히려 까칠한 스타일, 도도한 스타일, 캐리어 우먼이 되었다. 전통적인 스타일은(고급스러운 태도 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만 베푼다는 원칙이라도 세운 듯하다.)

결국 사람들이 이러는 이유는 스스로의 행복을 누구에게든 의존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가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하고 주도적이며 합리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사회가 발달하면서 이런 삶의 스타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확행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그런데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확실히 행복 맞는가?

부모에게 간섭받고, 잔소리 듣고, 티격태격 싸우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서 살아야 하고, 웬지 나에게 경제적 책임감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청소니 힘든 일은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거들떠보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과연 확실한 행복인지, 아니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편리한 삶인지 진단해보자.

행복하면서도 편리한 생활을 누릴수만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러나 불편하지만 행복할 수 있고, 편리하지만 행복할 수 없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좀 더 쉽게 가정해 보자.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소확행에 만족하면서 편리한 삶을 선택할 것인가?

더 쉽게 가정해 보자.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중국집 가서 자장면 시

켜먹을 것인가, 아니면 나 홀로 일본 여행 떠나면서 인스타그램으로 맛집 기행을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이 두가지 중에 오직 한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만약 행복이나 편리함이라는 두개의 태그 중에 오직 한 태그만을 위 두가지 삶 위에 올려 놓을 수 있다면 당신은 아내와 아기와 함께 있는 사진위에 어떤 태그를 달 것이며, 일본의 맛집 기행 사진 위에는 어떤 태그를 달 것인가?

또 다른 선택을 실험해 보자.

당신 앞에는 두 가지 문이 있고 오직 한쪽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오른쪽 문은 게임방문이다. 가장 최신의 컴퓨터에 화려한 오디오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당신은 가장 핫한 게임의 최고레벨의 소유자다. 문을 열고 의자에 앉자마자 뇌하수체에서 도파민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왼쪽 문은 어느 가정의 현관문이다. 안으로 들어서는 즉시 역시 최신 페미니즘을 장착한 아내가 도끼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아들을 돌보느라 이미 파김치가 되어 있을 것이 뻔하고 도착하기로 한 약속시간이 1시간이나 지난 상황이다. 5살 난 아들과는 오늘 꼭 말타기 놀이를 하기로 약속했기에 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문을 바라보기만 해도 뇌하수체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있다.

당신은 어느쪽 문을 열 것인가?

상황은 다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생 앞에는 위와 비슷한 두 개의 문이 준비되어 있다. 오른쪽 문은 환상의 문이다. 현실세계가 아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게임방을 꾸밀 수는 있지만, 게임 속에서 펼쳐지는 세계가 현실은 아니라는 뜻이다. 일주일동안 번 돈을 하루저녁 술집에서 허비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혜로운 젊은이는 아주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쾌락이 곧 행복은 아니다. 쾌락

과 만족은 동의어도 아니며 인과관계도 없다.

사실 위 두가지 상황은 극단적인 대비를 위한 설정에 불과하다. 두 설정 모두 비슷한 비용, 노력, 헌신,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 결과나, 얻게 되는 만족 등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가치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한쪽에는 가정이 남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게임에서 대패할 수도 있고, 가정도 깨어질 수 있다. 둘 다 상처는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시간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확행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남겨진 것은 오직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확실한 소확행은 맛집기행 보다는 가정이다. 날마다 맛집기행을 떠날수는 없지만, 가정에서는 날마다 행복할 수 있다. 다만 집을 지어야 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결코 쉽지 않지만,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힘겨운 업무 때문에 지치기도 한다. 그러나 날마다 행복한 단잠을 잘 수 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 다정한 대화를 나눌수도 있으며 오순도순 드라마를 함께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127:1-5)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깊은 꿀잠을 주신다. 하나님은 가정에게 복을 주신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